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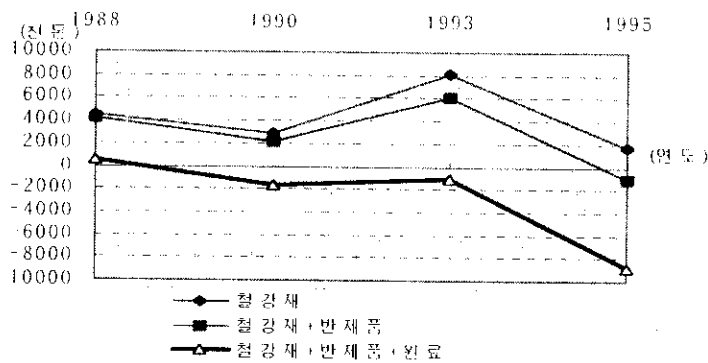
3. 우리나라의 鐵鋼材 交易收支의 變化

- (問題 提起) 1988년과 1995년 사이에 鐵鋼製品의 交易收支가 전반적으로 크게 악화됨
- (輸出 入 構造 分析) 輸出 품목 구조가 고도화되면서 동남아·중국에 대한 輸出이 급증함. 輸入 구조는 高加工 半제품의 수입 감소와 대일 수입 의존도 감소가 두드러짐
- (對策) 鐵鋼材 交易收支의 악화와 중국·동남아의 수입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半제품의 공급 능력 강화가 요구됨

○ 問題 提起

1988년 ~ 1995년간
철강재의 交易수
지가 일률적으로
흑자 감소 내지는
적자 확대의 현상
을 보임

- 철강 交易수지의 악화
- 철강 1차 제품의 수출은 88년 653만 톤에서 95년 881만 톤으로 증가했으나 수입은 273만 톤에서 758만 톤으로 급증, 交易수지의 흑자폭이 379만 톤에서 123만 톤으로 감소하였음. 특히 93년 761만 톤이던 철강 1차 제품의 交易수지 흑자가 불과 2년만인 95년에 123만 톤으로 대폭 감소
- 철강재의 중간재인 빌릿, 슬래브, 블룸 등 鋼半제품을 포함하는 경우, 交易수지는 88년 411만 톤, 93년 609만 톤 흑자였으나 95년에는 111만 톤 적자로 반전
- 이 밖에 선철, 고철, 합금철 등 철(Iron) 제품을 포함한 交易수지는 88년 53만 톤 흑자였으나 93년 112만, 94년 612만 톤, 95년 876만 톤으로 적자 규모가 확대



자료: 한국철강협회

1990년대에 들어
철강 제품의 공급
부족으로 조강류
와 원료의 무역
적자가 확대되고
판재류의 흑자는
대폭 감소

- 수출 산업으로서의 역할 퇴색
- 우리나라 철강 산업은 수입 원료와 반제품을 가공 수출하는 무역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90년대에 들어와 원료나 강반 제품을 물론 최종 제품까지 공급 부족이 심화되고 있음
- 경쟁력이 떨어지는 조강류는 생산 능력이 크게 확충되고(선재 제외) 있음에도 불구하고 低價의 수입산에 의한 시장 잠식으로 95년 102만 톤의 무역 역조를 보이고 있음. 수출 주종 품목인 판재류는 흑자 규모가 93년 692만 톤에서 95년 226만 톤으로 대폭 감소
- 조강류 중심의 설비 증설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94년부터 고철과 선철 등 원료 수입이 급증하고 있으며 조선 경기 활황에 따른 중후판의 초과 수요로 원료인 슬래브의 수입이 93년부터 140만 톤을 넘고 있음

○ 輸出入 構造 分析

· 품목별 분석

무역구조는 고부가
가 강제품의 수출
비중 상승과 수입
비중 하락을 통해
고도화 되고 있음

- 철강 1차 제품과 강반 제품의 輸出은 95% 이상이 최종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음. 품목별로는 조강류 수출 비중이 88년 20.14%에서 95년 11.35%로 반감된 반면, 판재류는 73.46%에서 82.92%로 10% 가량 상승해 판재류는 수출 경쟁력이 강화, 조강류는 약화되고 있음. 판재류 수출은 냉연과 표면 처리 강판 등 高加工 제품이 주도하여 수출 구조가 고도화
- 輸入은 같은 기간중 철강 1차 제품의 비중이 81.21%에서 69.49%로 감소한 반면 강반 제품의 비중은 18.79%에서 30.51%로 상승. 품목별로는 조강류가 주택 건설 호황으로 철근 수입이 급증했던 90년을 제외하고는 수입 비중이 20% 안팎에서 머무는 가운데 고부가가치강인 냉연 강판류와 표면 처리 강판류의 수입 감소로 판재류 수입 비중이 88년 61.67%에서 95년 49.60%로 하락하고 있어 수입 구조 역시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1> 철강 제품의 수출입 구성비 추이 (%)

	수출(D)				수입(E)			
	1988	1990	1993	1995	1988	1990	1993	1995
철강 1차 제품	94.67	95.35	97.28	95.18	81.21	79.46	55.54	69.49
(A)								
형강	6.93	4.09	6.57	6.02	3.67	7.12	6.09	9.33
봉강	1.99	1.17	1.41	2.05	2.72	1.70	1.44	1.02
철근	9.31	2.15	5.52	1.15	0.08	12.20	8.34	3.04
선재	1.18	3.54	2.16	1.77	12.75	4.20	4.08	5.67
조강류계	20.14	11.35	16.06	11.35	19.29	25.28	20.13	19.23
중후판	10.39	9.49	7.77	7.01	13.27	5.70	5.94	14.44
열연강판	34.67	30.73	31.31	31.16	23.98	37.64	17.37	23.69
냉연강판	9.77	16.41	20.05	21.60	10.14	4.06	3.22	2.24
표면처리	5.06	14.79	13.10	13.78	10.09	3.10	4.14	5.29
강판	13.58	11.91	8.48	9.36	4.17	3.44	3.94	3.94
판재류계	73.46	83.33	80.71	82.92	61.67	53.94	34.61	49.60
주단강	1.07	0.67	0.51	0.90	0.25	0.24	0.80	0.95
강반제품 계(B)	5.33	4.65	2.72	4.82	18.79	20.54	44.46	30.51
빌릿	0.80	0.25	0.06	0.43	1.36	10.39	15.17	15.77
슬래브	4.53	3.83	2.50	3.82	11.60	6.84	27.43	13.14
볼륨	n.a	n.a	n.a	n.a	n.a	n.a	n.a	0.76
소계(A+B)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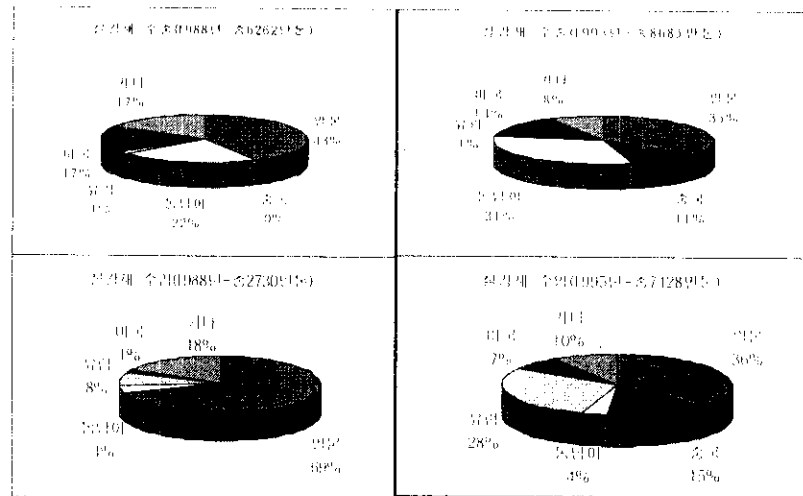
냉연 강판과 표면
처리 강판의 수출
확대를 위한 열연
공급 능력 확충
필요

판재류의 공급 능
력 부족으로 중국
과 동남아에 대한
수출 비중 증가에
도 불구하고 시장
점유율은 현저히
낮음

- 따라서 條鋼類의 경우 경쟁력 있는 품목들만 저가 수
입품에 대해 경쟁을 강화하며 특히 만성적인 무역 역
조를 보이고 있는 線材類는 설비 증설을 통한 수입
억제가 필요함. 공급 부족을 주도하고 있는 中厚板과
熱延鋼板의 공급 능력 확대는 이들 제품과 슬래브 등
반제품 수입의 절감뿐만 아니라 열연강판의 차공정
제품인 냉연 강판류와 표면 처리 강판의 수출 공급
능력 확대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서둘러야 할 과제임
- 지역별 분석
- 일본과 동남아에 대한 철강재 輸出 비중이 높아진 반
면 그외 지역에 대한 수출은 감소했는데 미국과 유럽
은 반덤핑 규제 등 수입 규제의 강화로 감소폭이 두
드러지고 있음. 중국과 동남아에 대한 수출 비중은
22%에서 42.4%로 배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점유율은 94년 현재 7% 수준으로 일본의 21%는 물론
지리적으로 불리한 브라질이나 EU의 7.5%와
9.2%에도 못미치고 있는 데 이는 수출 주종 상품인
판재류의 공급 능력 부족에서 비롯되는 것임

- 철강재 輸入은 88년에는 판재류를 중심으로 해서 일본으로부터 수입이 70%를 차지했었으나, 95년에는 수입 물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중국, 동구, 러시아의 저가 수입산의 급증으로 대일 수입 의존도가 37%대로 크게 낮아지고 있음

<표2> 철강 1차 제품의 지역별 수출입 구조의 추이



자료: 한국철강협회

주: 1988년 중국과 국교가 없었으므로 실적 파악 안됨

○ 對策

교역수지의 개선과 중국·동남아 시장 선점을 위해서 고로 건설을 통한 판재류 공급 능력 확충이 요구됨

- 고로 건설에 의한 판재류 공급 능력의 획기적 확대를 통해서만 철강 부문 교역수지는 개선될 수 있을 것임
- 향후 6,000만 톤~1억 톤의 철강재를 수입할 것으로 보이는 동남아와 중국 철강 시장은 철강 수출국들간에 치열한 시장 쟁탈전을 유발할 것으로 전망됨
- 현재와 같이 철강재 공급 확대가 條鋼類의 설비 증설로 이루어지는 경우, 조강류는 고철·선철등 원료 수입 유발로 저가 輸入産에 경쟁력 잃고 과잉 생산과 가동을 저하로 몸살을 앓을 것임. 판재류의 공급 부족은 내수 우선 정책에 따라 수출 감소와 수입 확대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됨 (채영배, 박병철)